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조정원
주간 최상진
편집장 공광섭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용인시기흥읍서천리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제1117호 〈주간〉 1997년 4월 28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년 5월 12일 창간) ISSN 1228－0054 【1】

社說

"남의 일이 아니다"

□북한 식량문제에 부쳐

국내외적으로 적십자사 종교·시민단체 일부언론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이미 달포전부터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지난 24일 학내 민주 5단체와 대학주보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 참여한 겨레사랑운동본부를 발족시켜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그저 막연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들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간헐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사정과 북한을 다녀온 외국인들의 증언,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여러 정황들로 볼 때, 북한의 식량문제는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기아문제는 아프리카의 기아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적어도 북한 정권이 영농기술 개발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식량문제 만큼은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으로 보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한 북한 정권의 무책임성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에 진입하고 있는 이 때, 우리말을 쓰는 우리의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굶어 죽는다는 말이 도대체 왠 말인가.

그러나 이제 북한의 무책임성만을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들의 형제자매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누가 누구를 탓하고 이데올로기 문제를 제기하고 서로의 국제정치적 득실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통일을 열망하고 있는가를 곰곰히 곱씹어 생각해 볼 때이다. 한 쪽의 동족이 굶어죽는 현실을 수수방관하면서 통일을 외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민간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설 때이다. 정부가 자기 동족을 살리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이다. 북한동포를 돕는 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온 겨레의 일이다. 20세기말 헐벗고 굶주린 우리 민족사가 있었다는 오명을 세계에 남길 수 없다.

어렵고 참담한 처지에 빠져있는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은 부패비만증에 걸린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의식도 될 것이며 어려울 때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도왔던 과거의 아름다운 인정의 문화를 다시 되살릴 기회도 될 것이다. 너 나 할 것없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극하고도 정성어린 동족애를 발휘할 때이다.

사 고

제8회 시문예 현상 공모전
오는 2일로 응모기간 연장

▲출품자격 : 양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작품접수 : 1997년 4월 1일~5월 2일
▲접 수 처 : 대학주보사 양캠퍼스 편집실
▲입상작 발표 : 5월 12일자 대학주보 지면 통해 발표
▲시상내용 : 당선작 1편－상금 1백만원, 상패
가 작 2편－상금 30만원, 상패
입선작 2편－상금 15만원, 상패
▲기 타 : 모든 입상작품은 대학주보에 귀속됨

대/학/주/보/사

C.R.S. 인증시험 지원율 저조

학교홍보 및 인식 부족이 원인

원서마감일 5월 9일로 연기

오는 5월 10일 시행될 서울캠퍼스 'C.R.S.인증시험'이 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저조한 응시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96학번과 그이후 입학생의 경우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한 이 시험에 응시지원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지원기간이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진 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학교측의 홍보가 부족했던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영어·전산 두분야에 걸쳐 시행되는 이 시험은 C.R.S.분야별 지정과목의 학점을 3학점 이상 취득한 자라야만 응시가 가능한데 현재 2학년 학생의 경우 대부분 지정과목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시험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어 응시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2학년 재학생의 경우 "C.R.S.지정과목을 이수하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부터 매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될 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성적부는 해당학기 학점란에 '0.0', 성적란에 'P'를 표기한다.

C.R.S.인증시험의 응시회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무료이다.

각 과목별 C.R.S.인증시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영어과목의 경우 '듣기', '언어구조 및 쓰기', '읽기'로 나누어 평가하고 C.R.S.인증시험 평가지침을 토대로 나눈 총 0~5등급 중 3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전산학의 경우 기본적 전산지식과 PC응용에 관한 사항으로 4지 선다형 50문항을 출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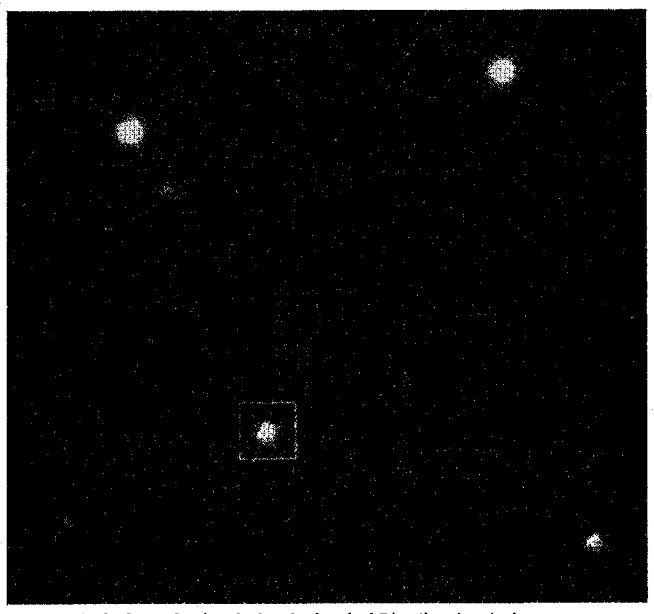
이번 시험에 대한 원서접수 마감은 응시지원율이 저조한 관계로 당초 예정일인 지난 26일보다 13일 늦춰진 5월 9일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홍 수업과장은 "이번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이므로 합격여부를 떠나서라도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갈수록 응시해당인원이 증가하므로 96학번의 경우 해당학기인 이번 시험이나 다음학기 시험에는 응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시험의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부이며, 원서교부는 수업과 및 각 단대 교무실에서 하고 있다.

시험장소는 5월 5일자 우리신문 및 교내 게시판, 단대 교무실 등에 공고한다.

〈강남이 기자〉



▲장민환 교수가 지난 16일 발견한 새 별 사진

장민환 교수 새 별 발견

국제 공인 신청중

우리학교 장민환(우주)교수가 새 별을 발견함으로써 국내 천문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장교수가 발견한 새 별은 알골형 쌍성 식상형태이고 이는 두별이 겹치고 나란히 위치하는 것을 반복하며 밝기가 변하는 것을 칭한다.

이 쌍성의 밝기는 15.2등급부터 15.7등급으로 바뀌며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보다 1만배가 어둡고 28시간 20분 주기로 돌고 있다.

1994년 플로리다 대학교 유학 중 장교수는 이 별의 존재를 인지했고 1996년 우리학교로 부임해 확인단계를 거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정밀관측을 하고 지난 16일 새 별 발견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3주 이내에 국제천문학회에 논문을 제출, 국제공인을 받을 예정이다.〈관련인터뷰 11면〉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리안 : GO KHU 31
하이텔 : GO KHU 10
유니텔 : GO KHU
인터넷 : http://news.khunghee.ac.kr

아·태 국제대학원 6월 착공

교육부, 연간 10억원 지원

아·태 국제전문대학원이 수원캠퍼스에 들어선다.

사색의 광장 기준 사회대 맞은편에 지하1층, 지상4층 총4천74㎡(1천2백34평)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혀재 부지공사 중이며 6월 중 착공, 약 12개월의 소요공사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제적 실무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아·태 국제전문대학원은 교육부에서 9개 대학을 선정한 국책사업으로 연간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대학원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영어논술과 국문논술,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TOFLE 600점 이상자와 TOEIC 900점 이상자에 한해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 기숙사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경영학과, 지역연구학과로 전공이 나뉘어져 있다.

국교위, 어학연수생 모집

수료시 3학점 인정

국제교류위원회는 오는 여름방학 중 약 한달간 두가지 영어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

먼저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Wilmingtom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연수기간은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다.

모집인원은 16~20명으로 연수비는 1천9백달러(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야외실습비, 사설이용료 포함, 항공료 별도)로 교육시간은 주당 25시간이다.

또한 미국 North Park University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오는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연수가 실시되며 모집인원은 16~20명으로 연수비는 1천6백50달러이다.

지원자격은 우리학교 학부 및 대학원 대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서교부 및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15일까지로 30만원의 신청금을 지정은행구좌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연수과정에서 전 과정을 이수, 수료증을 받은 학생은 단기어학연수 규정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3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하병준(물리)교수 퇴임

총장공로패 증정

'하병준 교수 정년퇴임식 및 교별강연회'가 지난 10일 자연대 청각실에서 열렸다.

하교수는 물리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장, 이·공과대학(공과대, 자연대 분리 이전) 학장과 초대 자연과학대학장을 역임하였다.

이날 하교수에게는 경희대총장공로패, 교육부장관 표창장 등의 상패가 증정되었다.

일일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소 개설〈관련기사 4면〉

교시탑

꽉찬 알맹이를 위하여

▼빛깔 좋은 과일이 먹기도 좋다. 일단 빛깔이 아름다우면 맛도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맛도 더 좋게 느껴진다. 그런데 때로 겉모습과 빛깔은 보기 좋은데 속알맹이는 별로 맛있지 않은 과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때 우리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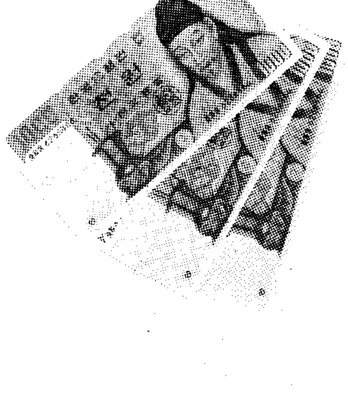
▼지난 4월10일에 노천극장에서 97년 전체 학생총회와 총학생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번 학생총회는 92년 이후 5년만에 다시 시행되었다. 이날 총학생회에서 제시한 97년 주력사업은 작은사랑 실천운동, 시대정신 강좌, 지역과 함께하는 예비대학, 학부제대책위,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6월항쟁 10주년 사업, 우리민족 서로돕기, 목요문화제의 개최이다. 총학에선 이날 회의에서 '그간 쌓여있던 학생들과의 벽을 허물고 친근한 학생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총회도중에 곳곳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일반학생에게 직접 발언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이러한 총학의 노력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는 경희인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대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서 어느 정도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전체 학생총회라고 칭하기엔 진행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보였다.

우선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홍보, 안건검토 등의 구체적인 준비가 다소 부족하였고, 총회에 약 7백명 정도의 학우들이 참석했으나 의결정족수인 전체학생의 1/7이상에 미치지 못해 안건토의나 의결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즉, 겉모습은 화려한데 알맹이는 별로 맛있지 않은 과일처럼 되어버렸다.

▼과일은 그냥 놔둔다고 꽉찬 알맹이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비료도 주는 등 끊임없이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총학에선 이번 실수를 바탕으로 좀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수렴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도 성숙된 주체의식으로 자신이 학교의 주인임을 깨닫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런 행사가 단순한 요식행사로만 끝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용섭 기자〉

3,000원의 작은 정성이
이천만 북녘 동포를 살립니다.



멀건 옥수수죽과 나물 한접시
북한 어린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전부입니다
지금은 그 옥수수죽도
바닥이 나있을지도 모릅니다

굶어 죽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멀리도 아닌 북녘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씩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희학원 겨레사랑 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굶기 및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한끼 굶은 돈 3,000원이 비록 적다해도
북녘 동포들이 한달간 생명을 이어갈 옥수수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작은 정성이나마 서로 함께 할 때
메마른 북녘 대지에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의
총학생회(961－0650/(0331)280－2800)

경희학원 겨레사랑 운동본부

대학주보사 호텔전문대학총학생회 서울캠퍼스총학생회 경희민주동문회
수원캠퍼스총학생회 경희대학교노동조합 대학원총학생회
경희의료원노동조합